



◇1648년 간행된 통도사판본 <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>.

‘고서(古書)’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? 혹시 한자가 빼곡히 들어찬 책들만 ‘고서’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음지. 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이자 출판사 ‘범우사’ 대표 윤형두(68·사진) 씨는 “한자만으로 인쇄된 옛 전적은 어딘지 중국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” 40여 년 간 한글본을 수집해 왔다. 이번에 펴낸 <옛 책의 한글판본>은 윤 씨가 모은 옛 문헌들 중 한글본 36종만을 가려 담은 책이다.

고서를, 그것도 한글본을 수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. 한자본에 비해 한글이 들어있는 언해본은 숫적으로도 적을 뿐더러 몇 배 씩이나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. 왜일까? 훈민정음이 반포된 조선 초기에는 <용비어천가>나 <월인천보>

옛날책으로 보는 한글의 변천



‘옛책의 한글판본’

윤형두 지음
범우사 / 9천원



옛문헌 36종 사진과 함께 연대순 엮어
사찰 간행 불경 언해본 명맥 유지 한몫

등 한글본이 간행되었고, 세조 때는 간경도감에서 <능엄경>, <원각경>, <화엄경> 등 불서를 한글로 펴냈다. 그러나 그 후 왕실이나 관(官)에서는 한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. 다행히 언해본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 바로 사찰에서 간행한 포교용 불교서적이다. 이 책에 소개된 36종의 한글본 중 불경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.

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더욱 주춤한 한글 보급은 1700년대 말인 정조 때에 이르러 활발해지기 시작해, 용주사판 <부모은중경 언해본>(1796년)과 <요륜행실도 언해본>(1797년) 등이 간행되기도 했다.

“한글은 세계 어느 나라 문자와도 닮지 않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”는 윤 씨는 “간편하면서도 정밀한 한글의 장점은 세계 문자역사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”이라고 말한다. 때문에 그는 “한글본을 수

집하며 한글 사랑은 곧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일을 맡게 되었다”고 말한다.

이 책에 대해 김두식 교수(혜전대학 출판미디어과)는 “그동안 한글의 생성과 변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흔치 않았는데 <옛 책의 한글판본>은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줄 책이다”며 “책에 실린 문헌 사진들은 한글의 변천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”라고 평가한다.

책에서는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최초의 언해본인 <능엄경언해>(1462년)와 통도사 판본 <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>(1648년), 밀양 표충사에서 간행된 <불설아미타경언해>(1904년) 등 한글이 담긴 옛 문헌 36종을 사진과 함께 연대순으로 볼 수 있으며, 고딕체에서 해서체를 답아가는 글자체와 ‘아래 아(·)’의 사용 변화 등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.

여수령 기자 snoopy@buddhapia.com

‘마음챙김’ 세 경전 우리말로



‘들숨날숨에 마음챙김은 공부’

대림 스님 옮김
초기불전연구원 / 5천원

부처님은 어떤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까?

<들숨날숨에 마음챙김은 공부>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‘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(出入息念)’이 언급된 세 경전을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스님이 우리말로 옮겨 담은 책이다.

1장은 <들숨날숨에 마음챙김은 경>을, 2장은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들숨날숨에 마음챙김은 공부를 하라고 설한 <긴 라훌라 교계경>을 옮긴 것이다. 3장은 <정정도론>에서 ‘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’의 명상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 놓았다.

박해 딛고 일군 ‘이슬람’ 소개

‘무함마드’ ‘꾸란’

나중근 엮음
시공사 / 각 1만원



<무함마드>에서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알라의 가르침을 믿고 이슬람을 이끈 무함마드의 전기로, 메카가 생성된 당시부터 무함마드의 사후까지 이슬람의 기본적인 제보를 총체적으로 훑고 있다.

<꾸란>은 이슬람의 성전 ‘꾸란’을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‘문명 가이드북’으로 읽고 있다.

단풍속 산사가 그리운 계절



‘나는 오늘 사찰에 간다’

글/사진 정병삼
풀빛 / 2만5천원

곱게 단풍이 든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산사가 그리운 계절, 가을이다.

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린 초목의 싱그러움 불남이나 맑은 물소리가 경쾌한 여름, 흰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사가 모두 ‘그리움’의 대상일지도 모른다. 그만큼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사찰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사실을 승명여대 한국사학과 정병삼(49) 교수는 “우리 전통적인 절은 자연과 어울리는 따뜻한 품을 지녔다. 지세를 살펴 정자가 모인 곳에 건물을 지어 가람을 이

루되 반드시 지형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는 조화를 고려하고 있다.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보든지 주변 정황과 어울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된다”고 설명하고 있다.

정 교수가 최근 펴낸 <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>는 그가 30여년 동안 전국 각지의 사찰을 구석구석 살핀 기록과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은 ‘사찰 안내서’다. 특히 절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의미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쓰려고 한 정 교수의 노력이 곳곳에 엿보인다.

책은 절에 들어서서 제일 처음 마주치는 일주문에서부터 천왕문, 범종각, 대웅전, 영산전, 팔상도의 의미는 물론 석탑과 석등, 행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. 무심결에 밟던 길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자 했던 선조들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다.

“그저 산이 좋아 산에 오르다보면 대개 가장 알맞은 자리에 가장 적절한 모양새로 자리잡은 산사를 만나게 된다”는 정 교수는 “이 건물은 왜 여기에 있고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를 살펴다보면 절 자체를 살아있는 문화 현장으로 여기게 된다”고 말한다.

여수령 기자

약사여래부처님공덕 칭송



‘약사 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’

‘생전예수제 참회의 공덕’

만다 스님 지음 / 문예마당 / 각 1만3천, 1만원

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만다스님이 <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>과 <생전예수제 참회의 공덕>을 펴냈다. <약사유리광>은 당나라 때 의정(義淨) 스님이 707년 번역한 것을 만다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한문을 함께 실었다.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기 위한 생전예수제의 의미를 담은 <생전예수제...>에서는 예수제를 올리는 이유를 <지장보살 본원경>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.

한 권으로 된, 제대로 쓴 우리 불교사전

시공사 불교사전

외국사전들의 짜깁기가 아닌, 한국인이 쓴 최초의 불교사전!!



‘시공사 불교사전’은 불교경전을 읽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역사, 철학,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, 제대로 된 불교사전의 첫 걸음으로 기록될 만하다. - 불교신문

‘시공사 불교사전’은 사전의 부피만 늘일 뿐 독자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배제하고 실제 필요한 단어들만으로 구성했으며, 설명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. - 현대불교

‘시공사 불교사전’은 불교학자 수준이 아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사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. 또한 기존의 불교사전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했다. - 범보신문

‘시공사 불교사전’은 한 권으로 보는 불교 개념 사전을 지향하며, 모든 표제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쓰고, 풀이에서는 가능한 한 불교 용어를 쓰지 않았다. 낱말 풀이 성격의 사전이 아닌, 개념어 완전 이해식 서술로,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사전이다.

괄괄한 편집 | 신국판 양장, 케이스 | 768쪽 | 38,000원

www.sigongsa.com 전화(02)588-0833 팩스(02)588-0835 시공사

가장 행복한 공부

우리 시대 큰스님,
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

40년간 하루도 바닥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(長坐不臥)의 수행, 하루 한 끼만의 식사, 그리고 철저한 계행(戒行)의 삶…… 불교계의 큰 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

“침선을 잘하면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미운 사람,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.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. 우리 마음이 나다, 너다, 좋다, 께다,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, 순수 정기간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침선하는 마음 자세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는 바로 우리 마음이자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근본지리인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.”

청화스님 말씀 | 신국판 | 269쪽(컬러 회보 포함) | 값 9,000원

